권해효·박하선, 개막식 사회 나선다

29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서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개최

오는 29일 저녁 7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리는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준동)가 개막식 사회자로 배우 권해효와 박하선을 선정, 발표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독립·예술영화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롤모델로서의 존재감을 지닌 권해효 배우, 그리고 예능과 웹콘텐츠,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비교 불가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 박하선 배우를 제22회 개막식 사회자로 선정했다. 권해효 배우는 홍상수 감독의 〈도망친 여자〉(2020)와 장률 감독의 〈후쿠오카〉(2019)를 비롯한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관객과 소통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이사로 위촉된 바 있다. 영화 전문 라디오 프로그램 〈박하선의 씨네타운〉의 진행자로 활약하며 최근 영화 〈고백〉(2020)으로 스크린에 복귀한 박하선 배우 역시 전주와 인연이 있다. '워킹맘'으로 분한 주연작 〈첫번째 아이〉가 올해 한국경쟁 본선 진출작으로 선정된 것이다.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가 개막식 사회자로 배우 권해효(왼쪽)와 박하선을 선정, 발표했다.

두 사람의 진행 아래 열릴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은 '악단광칠'의 축하 공연으로 이어져 한병아 감독이 연출한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트레일러에 삽입된 '노자노자'를 비롯해 총 세 곡의 무대를 선보인다.

개막식 이후에는 세르비아의 스르단 고르보비치 감독이 연출한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 〈아버지의 길〉이 상영된다. 〈써클즈 Circles〉(2013)로 선댄스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하며 국제적인 위상을 얻은 스르단 고르보비치 감독의 네 번째 영화 〈아버지의 길〉은, 가난하고 힘없는 가장이 가족을 되찾기 위해 떠나는 여정을 통해 위선적인 사회와 보여주기식 행정이 만들어낸 어설픈 사회 안전망의 맹점을 지적하며 베를린국제영화제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호평받은 바 있다.

한편,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김승수 조직위원장과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심사위원과 경쟁 부문 초청 감독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포토월 행사가 진행되며, 개막식 전체는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jiffmedia)에서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양은경 기자

전주역사박물관 "나만의 유물책 만들어요"

무료로 받은 키트 가지고 동영상 보며 책 만들 수 있도록 진행

전주역사박물관은 다음 달 5일부터 9일까지 '집콕놀이 키트-나만의 유물책 꾸미기'를 운영한다.

집콕놀이 키트-나만의 유물책 꾸미기는 전주역사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용문암막새, 색실상자, 작호도, 화조도, 다식판, 한지발 등의 유물을 주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책을 만드는 것으로, 무료로 받은 키트를 가지고 동영상을 보며 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전주역사박물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물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으며, 꾸미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집콕놀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역사박물관 홈페이지(www.jeonjumuseum.org)를 참고하거나 전주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063-228-6485)로 문의하면 된다.

강숙희 전주역사박물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박물관 방문이 어려운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이 어린이날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이야기손님' 신탁근 온양민속박물관 고문

'우리음악 즐기기' 노은아 해금 연주자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콘서트 다담

28일 예원당서 민속 유물 이야기 · 우리음악 즐기기 진행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예원당에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을 개최한다.

이번 이야기손님에는 신탁근 온양민속박물관 고문이 출연해 '민속을 읽어주다'를 주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희로애락이 담긴 소박하지만 위대한 문화유산 이야기와 함께 민속 유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특히, 신 고문은 민속품 수집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던 젊은 시절의 다양한 에피소드와 함께 특별한 민속품을 소개하며, 그냥 보고 넘길 일상의 물건들에 담긴 가치와 의미와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박물관인 온양박물관의 설립, 전통문화 보전의 중요성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리음악 즐기기'에서는 해금 연주자 노은아가 출연해 ▲바람이 전하는 말 ▲적념 ▲경기대풍류 등 서정적인 연주를 선보인다.

KBS 국악관현악단 단원으로도 활동한 해금 연주자 노은아는 현재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재직, 후학 양성 및 다양한 창작음악 연주 방법 개발 등 해금의 현대화를 위한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관람은 사전 예약제(선착순 150명)로 진행하며, 예약은 전화(063-620-2329)나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로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익산박물관, 이건무 前 국립중앙박물관장 초청 강좌

28일 '익산의 청동기문화' 주제

국립익산박물관(관장 최흥선)은 28일 '익산의 청동기문화'라는 주제로 이건무 전(前)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초청해 공개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3월 31일부터 12월 22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총 10회에 걸쳐 진행하는 '고도 익산과 미륵사지' 인문학특강 프로그램의 두 번째 시간이다.

이에 따르면 익산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다양한 청동기가 출토됐으며, 평양, 경주와 함께 한반도 청동기문화의 중요한 거점 중 하나다. 최근에는 발굴자료가 증가하면서 청동기유물뿐 아니라 집자리 등 유적과 유물이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

이번 강좌에서는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익산의 청동기문화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건무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문화재청장과 용인대 문화재대학원 대학원장을 역임했다. 대표 저서와 논고로는 '천 번의 붓질 한 번의 입맞춤'(2009), '청동기문화'(2006), '선사 유물과 유적'(2003), '한국식동검문화의 연구'(2003) 등이 있다.

한편 강좌는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신청은 박물관 누리집(iksan.museum.go.kr) 및 유선전화(063-830-0940)로 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찾아가는 청소년큐레이터 교육 운영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진로와 직업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큐레이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박물관 직업군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박물관 학예연구사 중 보존과학자의 토기복원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일선학교의 대외활동이 제한돼 있는 점을 고려해 박물관이 학교현장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지난 13일부터 상반기 교육프로그램을 신청받고 있으며, 5월 4일부터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중등학교 '진로와 직업' 교과 연계로 마련된 만큼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진로체험 교육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